

경북일보

www.kyongbuk.co.kr

2009년 7월 9일 목요일

17

포항 금진원, 부품·소재 中企 입주 잇따라

안산 본사 '한수' 개소식

최근 신축센터를 완공한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를 둔 ㈜한수는 6일 진흥원에 설치한 부설연구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74년 설립된 ㈜한수는 화공약품과 수처리 장치 및 기기 등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자본금 25억원에 연매출 478억원, 종업원 137명을 두고 있다.

㈜한수 허형배 회장은 "우수한 석박사급 연구 인력과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부설연구소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한수와 진흥원이 서로 한마음이 돼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진흥원에는 지역 철강전문 향토기업인 ㈜제일테크노스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한수가 최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부설연구소를 열었다.

가 부설연구소를 개소, 설립추진 당시 1억원의 출연금도 기탁해 산·연 공동연구개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제일테크노스는 최근 진흥원 표면코팅연구팀 전문연구원들과 함께 조선 데크플레이트용 아연도금강판의 불량문제를 해

결해 주목받기도 했다.

진흥원 정승화 행정지원실장은 "진흥원의 설립취지가 지역 부품·중소기업의 열린 공동연구소가 되는 것으로 향후 산·연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tolerance@kyongbuk.co.kr